

# 금강개발이 농·공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 용 철  
(金容哲)

중부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 I. 서론

## II. 금강권역의 경제적 재인식

## III. 금강권역의 농·공업 현황

## IV. 금강권역 개발과 농·공업 개발과제

## V. 결론

## I. 서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제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개방화·국제화가 진전되

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의 추진으로 선진국경제에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실현되므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자 지역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지역적 차원의 경제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국내·외적인 현실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과거와 같은 선을 그어 놓고 통제를 하여왔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세계 전체적으로 해체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대신 지역경제 그 자체가 능력에 따라 곧바로 국내 타지역이나 세계 어느 지역과도 직접 경제적 이해득실에 따라 경제적 교역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지역경제현실은 과거와 같은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관리체제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갈수록 지양되고, 그 대신 이제는 국내시장보다는 世界市場을 향한 世界化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민 삶의 추구를 위한 地方化가 동시에 전개되는 세방화(glo-

calization)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우리 국민과 지역주민들은 각자의 지역생활에 있어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도 질적인 삶의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과 응전(應戰)을 할 수 있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직은 규모나 능력 등 여러 면에서 이러한 지방화에 대응할 만한 단계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데에 있다. 그리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협력하여 하나의 지역경제적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이러한 지역경제적 권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천혜적 조건인 錦江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금강은 지역주민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젖줄이기에 과거에 받아 왔던 경제적 삶의 혜택의 고마움을 다시금 생각하여 보아야 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이 지역주민이 거주·존재하는 한 아껴가면서 보존·이용·개발하여야 하기에 지역경제적 개발차원에서 재음미하여 보아야 할 시기에 와 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과정을 경제발전사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면, 어느 지역이든 타 지역보다 경제발전의 속도가 빠른 지역은 분명히 인류가 이용 가능한 물(水)을 중심으로 하나의 권역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세계 4大 문명발상

지가 강을 끼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의 여러 세계 고대도시나 중세·근세의 세계를 이끌어 갔다고 할 수 있는 모든 都市들이 물과 가까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가까이 국내를 살펴 보아도 서울, 인천의 漢江이, 대전의 錦江이, 광주의 滎山江이, 부산, 대구의 落東江이 그것이다. 이는 경제발전과 모든 인류발전에 있어서 물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가 중차대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本稿에서는 금강권역에 대한 지역경제적 재인식을 하여야 할 역사적 사항들을 언급하고 나서, 금강권역의 지역경제적 현실은 농·공업적 측면에서 어떤 형태인지 알아 보고, 금강권역내에 있는 농업 및 공업경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며 재음미하여 보고자 한다.

## Ⅱ. 금강권역의 경제적 재인식

### 1. 경제적 재인식의 필요성

#### 1) 수운거점의 경제적 음미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의식주의 문제 해결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할 지 모르나, 그것은 인간의 행위 그 자체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치(value)로 본다면 부정은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인류의 경제발사회 발전단계를 살펴 보면 잘 알 수 있다. 즉, 원시공유제 경제체제에서 부터 시작하여 고대 노예소유제 경제체제, 중세 봉건농노제 경제체제,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출현과 고도화된 자본주의사회의 진전(박명광 · 이정용, 1993, pp.3-8)의 모든 과정이 근저에는 어떻게 하면富를 축적하여 정부는 그 나라의 국민에게 삶의 복지를 향상시켜 주고, 각각의 개인들은 의식주의 생활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하에 본고에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인류의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물(水)의 경제적 이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하나의 생활권역에 관한 요인을 밝혀 내는 것이 논점이다. 지금보다 경제규모나 체제가 단순하고, 교통이 그리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水運이 차지하는 경제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즉, 경제적 삶에 필요한 물자나 산물이 항구나 하구를 거점으로 무역이나 移出入이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히 물에 근접하여 살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크거나 작거나 모든 도시들이 물에 근접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물론 오늘날은 철도나 자동차 및 항공기 등의 수단이 발달하여 육상 및 항공교통의 요충지, 지역경제적 개념에서 보는 결절지역(nodal region)의 개념이 조금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대량화물수송의 수·출입이 항구를 이용하고 있음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물의 근처

에 인류가 정착하여 이를 하나의 생활터전으로 삼아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 경제권역의 현황을 살펴 보고, 급격하게 변하여 가는 새로운 경제사회시대에 부응하는 삶의 적응방법을 재인식하여 보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나라, 좁게는 우리 지역의 천혜자원인 금강권역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장기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재인식하여야 한다.

## 2) 금강유역의 개황

근대 조선시대에 있어서 충청남도의 경제적 시장권은 한성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으로써, 물자수송(流通)이 仁川항구를 경유지로 하여 그 영향권하에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근대 조선시대의 충청남도는 적어도 철도교통이 개통되기 이전에는 크게 3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진다(안병식 외3인, 1989, pp.154-173). 첫째는 인천과 충청남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들 수 있는 아산만의 여러 항구 중의 하나인 둔포를 거점으로 한 북부지역이 그것이다. 이의 영향권하에 있는 지역들은 牙山, 新昌, 成歡, 稷山, 木川, 奎義 등이 있다. 둘째는 禮山에서 洪城로 해서 인천으로 연결되는 서부지역이다. 이의 영향권하에 있는 지역들은 德山, 大興 등이 있다. 서부지역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분류하자면 서남부지역으로써 이의 영향권하에 있는 지역들은 保寧, 藍浦, 庇仁,

舒川 등이 있다. 셋째는 江景, 論山 등을 중심으로 하고, 그 경유지를 군산항구로 하는 금강연안지역이다. 이 지역의 주요 경제적 권역은 강경, 논산을 중심으로 한 금강유역 지방인데, 상류에는 부여, 공주, 연기, 대전, 금산에 이르며, 하류에는 서천, 군산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충청남도에 있어서 3개의 권역이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경부선철도(1905)와 호남선철도(1914)가 개통되면서 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였는 데, 물론 이에 더하여 충북선철도(1925)와 장항선철도(1931)가 개통되면서 부터는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이 시기부터는 항구나 하항의 이용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한 철도의 역이나 분기점들이 하나의 결절지역으로써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실례로써 신흥성장지역으로 등장한 도시들이 대전, 조치원, 천안, 장항 등이다. 이러한 신흥도시들은 지금까지도 성장거점지역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여기에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지역경제개발적 차원에서 던져주는 시사점은 금강유역에 위치해 있는 금강권역 군단위 지역의 쇠퇴현상이다.

## 2. 토산물 및 수공업현황

土産이라고 하는 말은 土地所産의 줄임말로써, 어느 한 땅(지역)에서 나는 산물을 의

미한다. 이는 최근에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身土不二라고 하는 말을 연상하게 한다. 이러한 토산은 일정지역 내에서 그 지역주민과 더불어 오랜 동안 적응하면서 생존하여 온, 그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연자원인 것이다.

조선후기 금강유역의 토산물 분포현황을 살펴 보면(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82, pp.178-179)

錦山(10종) 錦山(4) : 海松子, 松담, 蜂, 蜜  
珍山(9) : 柿, 楮, 桑, 松담, 石담, 蜂, 蜜, 漆, 鐵

燕岐(3종) 燕岐(3) : 錦鱗魚, 訥魚, 蟹

公州(10종) 公州(10) : 棗, 柿, 紙, 墨, 鐵, 葦魚, 秀魚, 錦鱗魚, 訥魚, 蟹

靑陽(11종) 靑陽(3) : 苧, 紫草, 川魚

定山(9) : 苧, 楮, 漆, 鐵, 蜂, 蜜, 訥魚, 錦鱗魚, 蟹

論山(19종) 連山(12) : 栗, 柿, 楮, 蜂, 蜜, 苧, 漆, 鐵, 魚, 錦鱗魚, 銀口魚, 蟹

恩津(9) : 柿, 竹, 箭, 鐵, 葦魚, 秀魚, 魚, 白魚, 蟹

魯城(3) : 鐵, 魚, 蟹

扶餘(11종) 扶餘(6) : 柿, 葦魚, 秀魚, 魚, 白魚, 蟹

林川(9) : 柿, 苧, 布, 葦魚, 秀魚, 魚, 白魚, 蟹, 鰕

石城(8) : 苧, 布, 鐵, 葦魚, 秀魚, 魚, 白魚, 蟹  
 鴻山(4) : 柿, 苧, 布, 漆  
 舒川(14종) 舒川(7) : 柿, 竹, 黃角, 苧, 鰻, 蛤, 海衣, 其他 魚物 20餘種  
 韓山(9) : 柿, 竹, 苧, 布, 漆, 葦魚, 秀魚, 白魚, 魚  
 庇仁(7) : 柿, 竹, 黃角, 細毛, 鰻, 蛤, 海衣, 其他 魚物 10餘種

과 같다. 금강권역에서 토산되는 물류는 모두 35종류로 파악되는 데, 어류 14종, 임산물류 7종, 과물 3종, 봉밀류 2종, 의류 2종, 공산물류 4종, 광산물류 1종, 기타 2종 등이다. 지역별로 살펴 보면 논산이 19종으로 토산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서천 14종, 부여 11종, 청양 11종, 공주 10종, 금산 10종, 연기 3종 등이다.

한편 수공품 분포현황을 살펴 보면(임원 16지, pp.4-8)

錦山(9종) 錦山(8) : 綿花, 綿布, 生麻苧布, 土器, 磁器, 茵席, 木物, 米穀  
 珍山(6) : 綿花, 土器, 磁器, 木物, 米穀, 煙草 燕岐 (1종)  
 全義(1) : 鑰器

公州(5종) 公州(5) : 綿花, 綿布, 紙物, 竹物, 米穀  
 靑陽(2종) 靑陽(2) : 米豆, 煙草  
 定山(2) : 米荳, 煙草  
 論山(8종) 連山(3) : 綿花, 綿布, 煙草  
 恩津(7) : 綿布, 麻布, 土器, 鑰器, 釜鼎, 米荳, 煙草  
 扶餘(3종) 扶餘(3) : 綿布 苧布, 煙草  
 林川(2) : 苧布, 煙草  
 鴻山(2) : 苧布, 煙草  
 舒川(2종)  
 韓山(1) : 苧布  
 庇仁(2) : 苧布, 魚鹽

과 같다. 금강권역에서 생산되는 물류는 모두 16종류로 파악되는데, 織造類 4종, 器物類 3종, 紙物類 1종, 席子類 1종, 鑛產物類 1종, 木材類 2종, 農產加工物類 3종, 기타 1종 등이다. 이상과 같이 토산물과 수공품의 분포된 현황을 종합하여 보면 금강권역의 상류지방에는 비교적山野에서 土産되는 物類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하류지방에는野河에서 土産되는 물류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柿와 蟹는 금강권역의 대부분 지역에서 土産되고 있다. 이 시기까지만 하여도 아직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과 같은 현대적 의미의 가공된 어떤 공산품의 형태가 아니고, 단순히 자연채취 그 상태로 만족하거나 약간의 가공된 형태의 물류로써 존재하는 산물류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오늘

날 지역경제발전과 더불어 주민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역특산물을 발굴·육성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되새겨 보아야 할 부분이다.

### 3. 외공장(外工匠), 소(所), 부곡(部曲)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서 까지도 생산품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농산품, 임산품 및 수산품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고, 공업생산품에 있어서는 기계를 이용한 공장제 기계공업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소규모의 원시적인 수공업에 의한 생산체제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기는 봉건적 유제가 뿌리 깊이 박혀 있었고, 자급자족경제가 해체되지 않고 있어서 각종의 장인(匠人)들은 중앙 및 지방관청에 分屬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산품 수요의 가장 큰 부분은 각 관청의 수요였고, 민간수요는 특정한 제품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匠人의 자유로운 수공업활동은 크게 평가할 수는 없는 단계였다(김신웅, 1984, pp.178-179). 우리 나라 수공업의 원류를 밝히자면 중국에서부터 部曲의 유래를 찾아 그 시발점을 언급하여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간략하게 신라시대부터 발전하여 조선시대 초기까지 존재하였던 향(鄕)·소(所)·부곡(部曲)에 대하여 大要를 밝혀 보고자 한다. 신라는 천민집단으로 향·소·부곡의 특수지역을 편성하였는데, 향·소는 주로 광공업, 수공업에 종사

하였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천민부락으로 강등된 부곡민은 각종의 산업, 특히 농업에 종사하였다(변태섭, 1979, p.98). 특히 소는 신라의 부곡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특산물의 생산자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신분적으로는 천민에 속하였다. 특히 고려시대에 있어서는 각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고, 일반농민수공업자와 구별되는 특정물을 생산하는 곳을 소라 하였다. 소는 국가의 요구에 응하는 별공수납대상지였으며, 여기에서는 특화된 전업적인 수공업을 이루고 있었다. 소는 지리적 조건에 따라 특정물의 생산지역을 국가가 선정한 것으로서 행정단위로도 특수지역을 이루고 있었다. 소의 주민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별공인 특산물 공급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들이 특산물 급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생산은 자기경영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별공 또는 조세공과를 부담하고 잔여처리는 자기경영에 속하는 것이었다. 각 소의 생산물은 특화되었고, 생산은 전문화하였으므로 농민의 생산물보다 질적으로 우수하였다. 이와 같이 소는 수공품 생산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김신웅, 1984, pp.8-9).

#### 1) 외공장(外工匠)

조선시대초기에 5개 지역(京畿, 關東, 湖西, 湖南, 嶺南)에 分屬되어 있는 외공장은 모두 2,908명인데, 그 중에서 호서지역은

622명이다(경국대전, 권지6, 공전 외공장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6-46, 고적조: 세종 장헌대왕실록, 권148-151, 지리지: 김신웅, 1984, pp.8-9). 금강권역에 존재하고 있는 외 공장을 살펴 보면

錦山(25명) 錦山(14) : 冶匠(1), 弓人(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5), 席匠(1), 磨造匠(1), 油具匠(1)

珍山(11) : 冶匠(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3), 席匠(1), 磨造匠(1), 油具匠(1)

燕岐(22명) 燕岐(11) : 冶匠(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沙器匠(1), 紙匠(2), 席匠(1), 油具匠(2)

全義(11) : 冶人(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沙器匠(1), 紙匠(2), 席匠(1), 油具匠(2)

公州(20명) 公州(20) : 甲匠(1), 冶匠(2), 弓人(1), 矢人(1), 木匠(1), 皮匠(1),

鎡匠(1), 漆匠(1), 沙器匠(3), 紙匠(6), 席匠(1), 油具匠(1)

靑陽(20명) 靑陽(11) : 冶匠(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沙器匠(2), 紙匠(2), 席匠(1), 油具匠(1)

定山(9) : 冶匠(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2), 席匠(1), 油具匠(1)

論山(19명) 恩津(10) : 冶匠(1), 弓人(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2), 席匠(1), 油具匠(1)

連山(9) : 冶匠(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2), 席匠(1), 油具匠(1)

扶餘(43명) 扶餘(10) : 冶匠(1), 弓人(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2), 席匠(1), 油具匠(1)

林川(14) : 冶匠(1), 弓人(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沙器匠(2), 紙匠(3),

席匠(1), 油具匠(1),  
黃囊匠(1)

石城(9) : 冶匠(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2), 席匠(1), 油具匠(1)

鴻山(10) : 冶匠(1), 弓人(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2), 席匠(1), 油具匠(1)

舒川(31명) 舒川(11) : 冶匠(1), 弓人(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3), 席匠(1), 油具匠(1)

韓山(10) : 冶匠(1), 弓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3), 席匠(1), 油具匠(1)

庇仁(10) : 冶匠(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2), 席匠(1), 油具匠(2)

과 같다. 금강권역에 존재하고 있는 외공장의 종류는 모두 14 장인으로 파악되는데, 각 지역별로 비교적 균등하게 업종별로 분포되어 있다. 인원수로 보면 금산 25명, 연기 22명, 공주 20명, 청양 20명, 논산 19명,

부여 43명, 서천 31명 등이다.

## 2) 소(所)

조선시대 초기에 5개지역(京畿, 關東, 湖西, 湖南, 嶺南)에 分屬되어 있는 소는 모두 288개소인데, 그 중에서 호서지역은 71개소이다(경국대전, 권지6, 공전 외공장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6-46, 고적조; 세종장헌대왕실록, 권148-151, 지리지; 김신웅, 1984, pp.8-9). 금강권역에 존재하고 있는 소를 살펴 보면

錦山(7개소) 錦山(7) : 浦保鹽, 橫川, 金岩, 太谷, 安城, 銅界, 陽良

燕岐(1개소) 燕岐(1) : 시川

公州(8개소) 公州(8) : 甲村, 令丹, 金生, 鳴鶴, 福水, 村介, 熊津, 樸山

靑陽(2개소) 靑陽(2) : 橫川, 上田

論山(없음)

扶餘(6개소) 扶餘(1) : 楓枝

林川(3) : 古多只, 今岩, 召羅

鴻山(2) : 非刀, 吳舍

舒川(3개소) 舒川(2) : 林述, 熊津川  
韓山(1) : 鸚谷

과 같다. 금강권역에 존재하고 있는 소를 각 지역별로 살펴 보면 금산 7개소, 연기 1



개소, 공주 8개소, 청양 2개소, 논산은 없고, 부여 6개소, 서천 3개소 등이다.

### 3) 부곡(部曲)

조선시대초기에 5개 지역(京畿, 關東, 湖西, 湖南, 嶺南)에 分屬되어 있는 부곡은 모두 455개소인데, 그 중에서 호서지역이 76개소이다(경국대전, 권지6, 공전 외공장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6-46, 고적조; 세종장헌대왕실록, 권148-151, 지리지; 김신웅, 1984, pp.8-9). 금강권역에 존재하고 있는 부곡을 살펴 보면

錦川(없음)

燕岐(1개소) 燕岐(1) : 大興

公州(7개소) 公州(7) : 貴智, 良化, 利仁, 난釜, 淸流, 美化, 古良

靑陽(2개소) 靑陽(2) : 永壽, 又本 論山(1개소) 連山(1) : 廣조

扶餘(2개소) 扶餘(1) : 石田 林川(1) : 安良

舒川(없음)

과 같다. 금강권역에 존재하고 있는 부곡을 각 지역별로 살펴 보면 금산은 없고, 연기 1개소, 공주 7개소, 청양 2개소, 논산 1개소, 부여 2개소이고 서천은 없다.

### 4. 물자집산의 거점

오늘날 물자가 집산하는 것은 고도로 잘 발달된 교통수단에 의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고 광범위하지만, 적어도 불과 1~2백년 정도만 하여도 지금과는 판이하였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순하고 자연친화적이었다. 이러한 자연친화적인 물자집산의 기본원리가 오늘날에는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보호아래서 경시되고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자연에 대한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금강유역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크게는 한성을 드나드는 인천항구의 시장권의 영향권하에 있었다. 즉 물자가 인천항구에서 주로 들어 와서 군산항구를 거쳐 강경, 부여, 공주, 부강 등의 하항을 거점으로 집산이 이루어졌다. 이들 지역은 일명 금강유역의 5포구라고 불리워지는, 오늘날로 되새겨 본다면 하나의 지역경제적 거점지역 내지는 결절지역인 셈이다.

특히 강경은 중계하항으로써, 서천·청양·공주·회덕·금산·전주지역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경제적 거점을 형성하고 있었다(나도승, 1981, p.101). 그러던 것이 호남선철도가 개통되고 나서부터는 그러한 영향력이 감소되었지만, 지금의 금강권역의 개발적 차원에서는 왜 이와 같은 하항들이 발전하였고 쇠퇴하게 되었는가를 재음미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왜냐하면 금강권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대전을 하나의 중심도시로 한다면,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배후지역의 도시들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 금강유역의 전체적 중심지역인 이와 같은 과거의 물자집산의 지역들이 꼭 필요하다.

### Ⅲ. 금강권역의 농·공업현황

#### 1. 농업현황

##### 1) 금강권역 농업개발계획현황

##### (1) 충청남도의 농어촌발전계획(안)

농림수산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50조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적인 농어촌발전계획(안)(1992~2001)을 수립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발전계획(안)에 의거하여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투자비를 총42조원으로 계획하고 이를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 사전 자료를 요구하였다.

이때 충청남도는 자료제출을 위한 작업에 있어서 정부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농어촌발전부문(농림수산부)의 정책적 방향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성장목표의 선정, 중점개발과제, 중요전략사업 및 핵심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도로 및 농지종합정비분야,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등과도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제2

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안의 농어촌개발 부문과도 연계하여 작성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작성된 충청남도의 농어촌발전계획(안)의 중점방향은 크게 5가지로 집약되고 있는 데, 첫째는 정예농어촌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도시근로자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전문경영인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농업의 형태별 개발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토지이용형 농업(생산기반정비, 경영규모확대, 영농기계화 등), 시설이용형 농업(시설현대화, 자동관배수 등 생력화, 유통개선), 축산업(시설자동화, 오염방지시설, 적정사육규모유도 및 계열화사업 등)으로 나누고 있다. 셋째는 지역별 특성 및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는 고급 농산물생산의 증가분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수출촉진사업의 추진이다. 다섯째는 환경농업적 개념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양단지조성, 유기농법, 무공해 생산단지조성, 농업공원 등이다.

이와 같은 충청남도의 사업이 목표년도인 2001년에 완수되면 농가인구가 495,900명(농가호수는 145,580 호, 그 중에서 전업농가는 8,176 호)으로 도내 인구대비 21.4%를 점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가소득은 2,592 만 원인데 그 중에서 농업소득이 1,192 만원(약 46%)이고, 농외소득이 1,400 만원(약 54%)으로 점차 농외소득의 비중을 높여 가려고 하고 있다. 생산기반시설을 보면 진흥지역내의 담경지정리율을 100%로 완성하여 전부 수

도작기계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으며, 농업생 산물의 공동출하율도 60%, 농어촌도로포장 율도 65%로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지 역별로 특징과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내 전체를 크게 5대 권역별로 나 누어 개발전략에 의거하여 연계적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 5대권역별로 각 지역권역 의 특성을 살펴 보면 대전시근교지역(금산, 연기, 공주)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근교농업 지대, 금강하류지역(논산, 부여, 서천)을 중 심으로 하는 남부평야농업지대, 서부 차령산 맥이 관통하는 지역(청양, 홍성, 보령)을 중 심으로 하는 남부 준산간농업지역, 서해안 서북부지역(당진, 서산, 태안)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평야 농업지대, 동북부지역(천 안, 아산,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 전원 농업지대 등이 그것이다.

## (2) 금강권역 개발계획 실태

충청남도의 4대 권역별 개발경영전략 중 에서 금강권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근교 농 업지대와 남부평야농업지대의 개발전략을 보다 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전시 근교를 중심으로 한 도시근 교 농업지대는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풍부한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영농기술수준이 높고, 새로운 기 술의 수용태세가 양호한 지역이다. 그리하여 이 지대의 농업발전전략은 첫째, 도시근교의

경제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시 설원예, 시설과수, 화훼 및 관상수 재배의 확대이다. 둘째, 도시 및 주변 공단과 연결 된 농외 취업기회 확대이다. 셋째, 계룡산 국립공원과 대둔산 도립공원 및 금강변의 경관자원과 금산 인삼타운(town) 등과 연 계된 관광농업 개발의 사업추진이다. 넷째는 지역의 우수 특산물을 발굴하여 생산단지를 확대·조성하고, 가공처리로 부가가치를 제 고시킨다.

그리고 금강하류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부 평야 농업지대는 금강유역의 대단위 평야지 대로 논면적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 어서, 미곡생산기반이 가장 잘 갖추어진 지 역이다. 그러나 금강하류의 제방시설이 취약 하여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유실로 농경지침수와 유실이 잦은 지역이다. 그리하 여 이 지대의 농업발전전략은 첫째, 미곡생 산성의 증대를 위한 농기계보급 확대와 기 술지도에 역점을 두어 하나의 라이스 센터 (rice center)를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경지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답리작 시설채소 재배의 확대와 관련된 기술 및 자금지원이 다. 이러한 형태의 농업조건이 가능한 것은 금강유역의 넓은 하천주변이 충적토 지대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데 단지화 추진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농후 사료형 축산 즉, 돼지 닭과 같은 짐승의 사육증대이다. 넷째는 특수작물인 땅콩, 마늘 등을 재배 확

대하는 일이다. 다섯째는 농외소득개발을 위해서 지역특산물과 관련된 가공산업의 육성이다. 그 실례로 논산의 딸기, 부여의 토마토, 한산의 모시와 소곡주 등을 생산하여 가공공장까지 설치하는 일이다. 여섯째는 홍수 피해의 상습지역인 금강하류제방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사업의 추진이다.

각 군별로 사업추진방향을 살펴 보면 도시근교농업지대인 금산은 인삼타운·산림욕시설이고, 연기는 복숭아 등 가공산업 개발이고, 공주는 농산물 상품개발센터·관광농업육성·백제문화권개발사업과의 연계 등이다. 서부 준산간 농업지대인 청양은 자연휴양림 조성이다. 남부평야 농업지대인 논산은 딸기특화시험장 및 가공공장·조경수 생산단지 육성이고, 부여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과의 연계이고, 서천은 경종농업 종합개발 등이다(대전·충남연감, 1993, pp.243-276).

## 2) 농업경영실태

충청남도의 농가호수는 1992년말 현재 전업농 132,476 호, 겸업농 76,514 호로 총 208,990 호이다. 여기에서 농민후계자 육성현황을 살펴 보면 1992년 현재 남자 5,685 명, 여자 104 명으로 총 5,825 명이다. 영농후계자를 금강권역에 한정해서 지역별로 보면 금산 336 명, 연기 258 명, 공주 426 명, 청양 275 명, 논산 530 명, 부여 550 명, 서천 412 명으로 부여가 가장 많다.

충청남도의 담면적은 1992년말 현재 총

198,271ha 이고, 경지정리실적은 91,799ha로써 경지정리율은 46%이다. 이를 금강권역에 한정해서 지역별로 경지정리율을 살펴 보면 금산 25%(6,433ha 중에서 1,610ha), 연기 41%(6,751 중에서 2,796ha), 공주 34%(13,467ha 중에서 4,665ha), 청양 39%(8,132ha 중에서 3,197ha), 논산 64%(18,330ha 중에서 11,739ha), 부여 49%(17,309ha 중에서 8,476ha), 서천 58%(12,261ha 중에서 7,136ha)로써 충청남도의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남부평야농업지대인 논산·부여·서천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기계화영농단조성은 1992년말 현재 총 4,948 개소인데, 이를 규모별로 살펴 보면, 대규모가 3,017 개소, 소규모가 1,931 개소이다. 이를 금강권역에 한정해서 지역별로 살펴 보면 금산 192 개소, 연기 178 개소, 공주 331 개소, 청양 216 개소, 논산 408 개소, 부여 386 개소, 서천 313 개소로써 논산이 가장 많다.

충청남도내에 존재하고 있는 농기계 보유현황은 1992년말 현재 총 449,063 대로 경운기 94,898 대, 트랙터 8,683 대, 이앙기 26,889 대, 바인더 4,849 대, 콤팩트 9,391 대, 곡물건조기 3,623 대, 기타 300,730 대 등이다. 이를 금강권역에 한정해서 지역별로 살펴 보면 금산 18,282 대, 연기 17,020 대, 공주 34,385 대, 청양 21,159 대, 논산 34,517 대, 부여 35,400 대, 서천 22,593 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보유현황은 농촌인력이 점점 고령화

및 부녀화되어 가고 있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일손을 대신하여 줄 기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의 정부양곡 도정공장수는 1992년말 현재 총42개소인데, 이를 금강권역에 한정해서 지역별로 살펴 보면 금산 1개소, 연기 1개소, 공주 2개소, 청양 2개소, 논산 4개소, 부여 5개소, 서천이 3개소로써 부여가 가장 많다(대전·충남연감, 1993, pp.441-456).

## 2. 공업현황

### 1) 기업체수 현황

오늘날 산업구조가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2차산업에서 3차산업 등으로 변화 발전되어 가는 것은 그만큼 2·3차산업의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충청남도의 기업체수는 1992년말 현재 총 2,775개 업체로써 대기업체가 35개, 중기업체 1,148개, 소기업체 1,189개 등이다(대전·충남연감, 1993, p.462).

특히 금강권역의 기업체수는 총1,059개 업체인데 각 지역별로 살펴 보면 금산 152개, 연기 202개, 공주 250개, 청양 25개, 논산 273개, 부여 89개, 서천 68개 등이다. 금강권역의 기업체수를 업종별로 살펴 보면 음식료품가공 및 제조업 211개, 섬유·의복 및 가죽제조업 289개,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49개, 종이·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제

조업 45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업 118개, 비금속광물제조업 174개, 제1차 금속제조업 49개,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 68개, 전기전자제조업 56개 등이다. 음식료품가공 및 제조업은 논산·연기·금산·부여·서천·공주·청양 순(順), 섬유·의복 및 가죽제조업은 공주·논산·연기·금산·부여·서천 순,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은 금산·공주·연기·부여·논산·청양·서천 순, 종이·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제조업은 연기·논산·공주·금산·청양·부여·서천 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업은 연기·금산·논산·공주·서천·부여·청양 순, 비금속광물제조업은 논산·연기·공주·부여·금산·서천·청양 순, 제1차 금속제조업은 금산·연기·공주·논산·서천 순,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은 논산·금산·연기·서천·공주·청양 순, 전기전자제조업은 연기·논산·금산·공주·부여·청양·서천 순이다.

### 2) 취업자수 현황

앞에서도 말했듯이, 산업구조가 1차에서 2차산업으로,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변화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업의 형태도 이에 편승하여 3차산업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요사이에는 3D(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작업)산업의 취업피현상으로 어찌됐던 간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산업(기업)들도 취업구조의 불균형 현상으

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충청남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1992년말 현재 총1,872,095명이고, 가구는 총 511,843호이고, 취업자수는 총105,71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대전·충남연감, 1993, p.462).

특히 금강권역의 취업자수는 총 31,971명인데 각 지역별로 살펴 보면 금산 5,143명, 연기 9,355명, 공주 4,113명, 청양 567명, 논산 7,688명, 부여 3,271명, 서천 1,834명 등이다.

금강권역의 취업자수를 업종별로 살펴 보면 음식료품가공 및 제조업 6,362명, 섬유·의복 및 가죽제조업 6,595명,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698명, 종이·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제조업 3,127명,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업 4,280명, 비금속광물제조업 4,453명, 제1차 금속제조업 1,371명,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 2,462명, 전기전자제조업 2,623명 등이다. 음식료품가공 및 제조업은 논산·부여·공주·연기·금산·서천·청양 순, 섬유·의복 및 가죽제조업은 논산·연기·공주·금산·부여·서천 순,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은 금산·연기·공주·부여·논산·청양·서천 순, 종이·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제조업은 연기·서천·부여·논산·금산·공주·청양 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업은 금산·연기·논산·서천·부여·공

주·청양 순, 비금속광물제조업은 논산·연기·공주·금산·부여·청양·서천 순, 제1차 금속제조업은 논산·금산·연기·공주 순,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은 연기·금산·논산·공주·청양 순, 전기전자제조업은 연기·논산·금산·공주·부여·청양 순이다(대전·충남연감, 1993, pp.1134-1200).

### 3) 생산현황

금강권역의 제조업생산현황을 살펴 보면, 1992년말 현재 내수가 총2,004,098백만원이고, 수출이 총349,154천달러이다. 이것을 각 지역별로 살펴 보면 금산 186,411백만원(19,145천달러), 연기 377,757백만원(211,009천달러), 공주 233,237백만원(12,101천달러), 청양 59,520백만원(3,500천달러), 논산 476,437백만원(30,155천달러), 부여 358,900백만원(56,142천달러), 서천 311,836백만원(17,102천달러) 등이다.

금강권역의 제조업 생산현황을 업종별로 살펴 보면 음식료품가공 및 제조업이 575,872백만원(58,223천달러), 섬유·의복 및 가죽제조업이 120,112백만원(163,433천달러),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이 31,287백만원(1,311천달러), 종이·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제조업이 273,692백만원(18,602천달러),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업이 261,889백만원(10,007천달러), 비금속광물제조업이 496,563백만원(8,113천달러), 제1차 금속제조업이 70,394백만원(22,206천달러),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이 85,730백만원(18,290천달러), 전기전자제조업이 88,559천달러) 등이다. 음식료품가공 및 제조업은 논산·공주·서천·금산·부여·연기·청양 순, 섬유·의복 및 가죽제조업은 연기·공주·금산·논산·부여·서천 순,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은 금산·연기·공주·부여·논산·서천·청양 순, 종이·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제조업은 연기·서천·부여·논산·금산·공주·청양 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업은 연기·청양·금산·부여·논산·공주·서천 순, 비금속광물 제조업은 부여·서천·논산·연기·공주·금산·청양 순, 제1차 금속제조업은 서천·논산·금산·연기·공주 순,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은 금산·논산·연기·서천·공주·청양 순, 전기전자제조업은 연기·논산·서천·공주·금산·부여·청양 순이다(대전·충남연감, 1993, pp.1134-1200).

#### 4) 수출업체 현황

금강권역의 1992년말 현재 수출업체수는 총99개 업체인데, 각 지역별로는 금산 9개, 연기 34개, 공주 7개, 청양 1개체, 논산 28개, 부여 10개, 서천 10개 등이다.

업종별로 살펴 보면 음식료품가공 및 제조업이 18개, 섬유·의복 및 가죽제조업이 32개,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이 1개, 종이·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제조업이 5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업이 8개, 비금속광물

제조업이 8개, 제1차 금속제조업이 7개,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이 6개, 전기전자제조업이 14개 등이다. 음식료품가공 및 제조업은 논산·부여·금산·연기·서천·공주 순, 섬유·의복 및 가죽제조업은 논산·연기·부여·공주·서천 순,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은 금산, 종이·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제조업은 연기·서천·논산 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업은 연기·금산·서천 순, 비금속광물제조업은 논산·연기·부여·금산·청양 순, 제1차 금속제조업은 서천·연기·공주·논산 순,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은 연기·금산·논산 순, 전기·전자제조업은 연기·논산·공주·부여 순이다(대전·충남연감, 1993, pp.1134-1200).

#### 5) 농공단지 현황

정부는 대도시 공업의 지방분산과 지방공업 육성을 위한 공업입지 정책을 수립하고 공업개발단지를 조성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정책이 농촌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농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법률 제3689호, 1983. 12.)을 제정하여 농공지구를 중심으로한 농촌공업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촌경제역의 향상과 농외소득증대,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농공단지 49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1992년말 현재까지 44개 지구(2,161천평)를 완료하고, 2개 지구(90천

평)는 조성중이며, 3개 지구(130천평)는 조성준비를 하고 있다(대전·충남연감, 1993, p.462).

금강권역에 있어서 농공단지를 살펴 보면 1992년말 현재 총21개 단지, 160개 업체에서 8202명의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거나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다. 각 지역별로 살펴 보면 금산 2개 단지(23개 업체, 851명), 연기 3개 단지(33개 업체, 1,828명), 공주 5개 단지(34개 업체, 1,837명), 청양 4개 단지(22개 업체, 2,485명), 논산 3개 단지(34개 업체, 850명), 부여 2개 단지(8개 업체, 261명), 서천 2개 단지(6개 업체, 90명) 등이다.

#### Ⅳ. 금강권역 개발과 농·공업 개발과제

이상과 같이 금강권역에 대한 경제적 인식을 과거의 한 역사적인 측면과 현재의 농·공업 현실을 간단하게 살펴 보았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 과거의 경제적 현상을 오늘의 현실과 비교하려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넘나들다 보니 무리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과거를 현재와 비교하여 뿌리가 있는 전통의 지역경제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경제발전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모형이라고 하는 필자의 한 바램으로써 서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기 내용에 기초하여 몇가지 문제점과 겸하여 개발과제를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는 開發哲學의 不在現象이다. 해당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학력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자본주의정신에 맞추어진 생활을 영위하다 보니 모든 사고나 행동이 자기중심적인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즉, 어떠한 방법이 됐던 간에 결과가 이익(이윤)만 많이 남기면 된다는 생각들 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은 자기에게 매우 유리한 혜택이나 이익이 돌아 올지 모르나, 종국에 가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단위에 지역경제개발의 역기능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해당 지역의 구성원인 각각의 개인에게로 돌아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성급하고 단시일내에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이제는 지양하고, 무엇이 진정하고도 장기적으로 지역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는가의 개발철학적 차원에서 수립·시행하여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타 지역과 같은 개발후유증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미한 금강권역은 매우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후발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광역협의체적 지역경제개발정책의 수립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되기 이전에도 각 지역, 예를 들면 단위지역별로도 님비(NIMBY)현상이 상존하여 지역간 경제개발



의 협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더우기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동일조건이 2~3개의 단위지역에 공존하고 있음에도 각 단위지역별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금강권역과 같은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경제생활권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지적되고 있으나,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광역협의체적 지역경제개발단위체의 조성이 시급하다. 이렇게 하므로써 각각의 단위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미미하지만 광역적으로 통합한다면 대외적으로 신용도나 경쟁력을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다.

셋째는 해당지역의 경제현실을 역사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적응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금까지의 경제개발 또는 지역개발정책이 거의 대부분 선진국의 모델을 모방하여 시행하다 보니 진실로 귀중하게 아끼면서 보존·보전해야 할 우리 전통의 경제생활의 삶의 맛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이나 생활 및 체질 등이 모두가 외국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현실이 혹자들은 세계화·국제화라고 착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세계화·국제화는 우리 전통의 모든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를 갈고 닦을 때 빛이 나서 이것을 외국인들이 수용할때 진정한 우리의 세

계화·국제화가 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금강권역이 우리 국토의 타지역에 비해서 덜 발전·개발되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이와 같은 국제화·세계화의 추진과정에서 보면 오히려 다행인지 모른다. 이미 개발되어서 고유의 “전통적인 삶” 그 자체가 모두 없어져 버린 지역은 과거를 되돌려 놓을 수 없으나, 우리 지역은 이러한 전통을 타지역에 비해 많이 간직하고 있어, 이런 후발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전통적 농·공업을 발전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여 세계화·국제화하여 나가야 하겠다. 역사의 모든 것을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소중히 여기는 민족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경제적 자원은 없다.

넷째는 자연친화적 지역경제개발정책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지역·경제개발정책이 외국의 모델을 도입하다 보니, 우리 전통적 삶의 자연순응적 형태가 아닌 자연도전적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 모두가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는 전통적·자연순응적 기반위에서 자연친화력을 가진 지역경제개발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들이 수천년동안 생활의 터전을 쌓아 온 경제적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 선조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한 경제생활을 해 왔는지, 아마도 그 당시의 삶의 형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에 순응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것이었기 때문이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연친화적인 삶의 경제개발은 앞으로 생활의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조상들의 자연친화적인 삶의 방법을 연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금강권역도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하고 밝혀야 할 경제적 유산들이 많이 있다.

다섯째는 연구하는 농·공업인을 육성하는 일이다. 앞으로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남보다 정보가 빨라야 하는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연구하는 것 뿐이다. 농촌지역도 과거와 같은 전통적 답습에 의한 농업경영이 아니라, 경쟁사회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이에 기반을 둔 도전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서 연구하여야 한다. 특히 단순한 농업 생산만을 하여 1차산물로 판매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가공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할 때에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노력하여야 한다(김용철, 1995, pp.3-33). 금강권역에서도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다.

여섯째는 고급농산물을 생산·가공·판매까지 계열화하는 작업이다. 생활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 앞으로는 양질의 농산물을 소비자들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가공하여 최종 소비자들에게 까지 접근하여 판매까지 담당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농촌지역에서의 농업과 공업은 별개의 것처럼 정책을 시행·추진하여 온 면이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비효율적인 면만 연출하고 말았다. 그러한 예가 농공단지의 일부가 그렇다. 농공단지에서 사용되어지는 재료가 그렇고, 취업자의 형태가 그렇고, 생산된 상품도 지역화가 어려웠다. 단지 그 지역에서 생산만 한다는 그 자체 뿐이었다. 앞으로는 농공단지의 운영을 그 지역에서 토산되는 것들(농산물이나 됐건, 기타 2·3차 산물이 됐건간에)을 재료로 하여 지역특산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치중하여야 한다. 일부지역의 농·공산품은 이미 지역특산품화되어 가고 있으나, 이를 보다 공고히 하여야 하겠다. 지역경제적 부를 보다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한걸음 더 나아가 가공·유통까지 취급하여야 하겠다.

일곱째는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형태로 농공단지를 육성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농가소득의 주수입이 농업경영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외소득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하겠다. 이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인접지역에 공업을 유치하는 일이다. 그 지역에서 토산되는 산물을 가지고 특산품을 생산하는 공업을 유치하여, 가족의 일부가 취업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공장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생

산재료도 토산이므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농가측에서는 토산을 판매할 수 있는 안정적 길이 트이는 한편, 취업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이중적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그 지역에서 나는 산물을 재료로 하여 만드는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는 농가 가구원도 충분한 생산과정의 지식을 알고 있어서 취업시에 흥미가 있고 안심이 되며, 공장 운영자도 타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재료나 취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서 상호 호혜적이다.


## V. 결 론

한국경제나 그 하위단위인 지역경제의 장래를 우리 손으로 건설하게 구축하여 나아가려면 반드시 역사적 궤적(軌跡)을 찾아서 참조하여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현재 입장과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선조들이 생활하면서 지녀 온 전통적 방법이 어떠한 것이었으며, 어떻게 변천되어 발전되고 있었는가를 재음미하여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단위지역별로 지역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데에는 이러한 조명이 매우 필요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제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금강권역에 있어서 선조들의 전래적 삶의 일부를 간략하게 살펴 보고, 현재상황의 농·공업적 측

면에서 서술하여 보았다. 전래적 삶의 형태와 현재를 비교하여 볼 때, 역사성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지역성이라고나 할까 하는 특성이 발견되지 않고 타지역과 모두 비슷한 형태의 지역경제의 모습뿐이다. 그러한 형태로는 경쟁사회에서 극복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개발철학의 재인식, 광역협의체적 지역경제개발정책의 수립, 해당지역의 경제현실을 역사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적응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것, 자연친화적 지역경제개발정책, 연구하는 농공업인을 육성하는 일, 고급농산물을 생산·가공·판매까지 계열화하는 작업,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형태로 농공단지육성하는 일 등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금강권역에 있어서 지역경제적 부(富)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이에 관련된 공업을 육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주민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는 방안임을 염두해 두고 지역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여 나아가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경국대전, 권지6, 공전 외공장조  
공산지(상).
- 김신웅, “조선시대의 수공업 연구,” 동국대  
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 김용철, 자본집약형 농업인의 의식개혁 교  
육, 금산군농촌지도소, 1995.
- 나도승, “금강수운 하항시장권의 변천에 관  
한 연구,” 공주교육대학 논문집(제17  
집), 1981.
- 대전·충남연감편찬위원회, 대전·충남연감,  
충부매일신문사, 1993.
- 대전·충남지역개발연구소,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농공지구개발방향에 관한 연  
구, 1987.
- 박명광·이정용, 경제학개론, 무역경영사,  
1993.
- 변태섭, 수험한국사, 법문사, 1979.
- 북촌수인, “高麗時代の所制度について,” 조  
선학보, 제50집, 1979.
- 세종장헌대왕실록, 권148~151, 지리지.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6~46, 고적조.안병  
직 외 3인 편저, 근대조선의 경제구  
조, 비봉출판사, 1989.
- 임원십육지, 예규지 권제4 화식8 역장시.충  
남대학교백제연구소, 대동지지(상),  
농경출판사, 1982.
- 홍산읍지(전).